

# 18세기 프랑스 면직물 고찰

## - 직물견본수집록 「리솔리유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 양 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조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면직물의 다양한 유형을 수록하고 있는 「리솔리유 컬렉션」을 통해, 18세기 초중반 프랑스 면직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18세기 프랑스 직물의 유형 및 면 프린트 직물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리솔리유 컬렉션」의 직물 견본 총 4818개 중 분류된 면직물 264점의 목록을 작성, 유형 및 명칭에 따른 역사, 조성 및 조직 특성, 용도, 생산지 등을 조사하고, 18세기 직물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와 종합하여 그 제반 특성을 연구하였다. 뚜알, 쉬노아즈, 시아모아즈, 앵디엔느 등 다양한 기법의 프린트 직물이 215점으로 수집된 견본의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성에 따른 직물의 종류는 뚜알, 꾸띠, 퀴멘느, 다마는 교직하지 않고 면으로만 제작되었고, 까디는 모, 바쟁은 마, 뽀뽀린과 빠스명띠에는 견과 각각 교직하였다. 조직에 따른 직물의 종류로는 뚜알, 부판느, 꾸띠, 뽀뽀린은 평직, 퀴멘느, 바쟁, 까디는 능직, 다마는 변형 능직으로 이루어졌으며, 빠스명띠에는 특수 조직으로 이루어진 장식끈이다. 뚜알, 쉬노아즈, 시아모아즈, 앵디엔느 등의 프린트 직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물들은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섬세하게 짠 퀴멘느는 안감, 모와 교직한 기모직의 까디는 겨울옷감, 견과 교직하여 섬세하게 제작한 뽀뽀린은 라제리류로 사용되었다. 마와 섞어 굵게 짠 꾸띠는 콜셋에 사용되었고, 부판느, 바쟁, 꾸띠, 다마는 침장구용으로 쓰였다. 수록된 직물의 주 생산지는 프랑스 북부의 루앙, 메슬레, 아베빌, 쟌느와 중부의 오를레앙 그리고 남부의 마르세이유, 앙띠브, 프로방스, 삐르뻬냐, 툴롱 등이다.

주제어: 18세기, 면, 리솔리유 컬렉션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0년 2월 8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3월 6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9일

교신저자: 김양희, kimyanghee@inha.ac.kr

## I. 서론

본 연구는 16세기 말 17세기 초 프랑스에 유입되어 18세기에 이르러 전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면직물에 관한 연구이다. 이제까지 18세기 서양복식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연구는 간과되어 왔으나, 최근 몇몇 학술논문에 의해 매우 귀중한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18세기 서양 직물에 관한 많지 않은 학술논문 중, 「바로크(Broque)직물에 나타난 플로럴(floral) 패턴의 조형성」(이선화, 권영숙, 2002)에서는 ‘바로크 시대 예술양식을 바탕으로 직물에 나타난 플로럴 패턴의 형식적 특징 및 디자인 특성’<sup>1)</sup>을 연구하였고, 「18세기 프랑스의 프린트 직물에 관한 연구」(김희선, 구희경, 2006)에서는 ‘프린트 생산기법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문양을 중심으로 정리’<sup>2)</sup>하였으며, 「18세기 로코코 패션에 나타난 시누아즈리(chinoiserie)」 연구(신주영, 김민자, 2006)에서는 ‘사적고찰을 통해 로코코 시누아즈리의 미술사적 가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스타일이 당시 패션에 미친 영향을 분석’<sup>3)</sup> 하였다. 앞선 연구들의 대부분이 직물의 문양특성에 따른 조형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당시 면직물의 다양한 유형을 수록하고 있는 「리슐리우 컬렉션(La Collection Richelieu)」의 고찰을 통해, 18세기 초중반 프랑스 면직물의 종류에 따른 명칭, 역사, 섬유조성, 제작특성, 용도, 생산지에 대한 제반특성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식 및 직물연구에서는 직접사료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서양복식의 경우 소장유물이 희귀한 국내연구 여건 상, 국내외에서 출간된 논문, 전문서적, 박물관복식유물 전시도록, 인터넷자료 등을 분석한 문헌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언급한 경우는 있으나 「리슐리우 컬렉션」전체를 분석한 연구가 없음은 물론이고, 본 연구와 같이 컬렉션

의 일부분만이라도 분석한 예가 없는 직접사료를 목록화하여 자료로 발굴한 점에서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리슐리우 컬렉션」은 1732년에서 1737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직물을 당시 수장이었던 리슐리우의 명령에 의해 조사하여 직물 견본 전집으로 제작한 것으로 In-folio(가로 26cm x 세로 40cm)크기의 전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왕립도서관의 후속 기관인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이 소장하고 있다.<sup>4)</sup>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등지에서 생산된 견직물에서부터 모직물, 마직물, 면직물, 리본테이프에 이르기까지 총 4818개의 다량의 직물 견본을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본에 따른 조직 및 조성, 직물 폭, 명칭, 생산지, 용도 등의 풍부한 정보를 수사본으로 기록하고 있다.<sup>5)</sup>

수록된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권에는 1735-1736년 베르사이유 궁에 머물렀던 포르투갈 왕의 예복에 사용되었던 무늬직 견직물이나 1736년 왕비의 예복용으로 매우 희귀하고 값진 리용 산 견직물, 아베빌(Abbeville), 님(Nîmes), 툴롱(Toulon), 루앙(Rouen) 산 란제리용 투일(toile), 드로게(droguets), 마르세이유(Marseille)의 면 프린트 직물, 가구용 다마(damas), 침구류용 샤프트르(Chartres) 산 능직물 등과 그라스(Grasse), 메슬레(Meslay), 이수덩(Issoudun), 프로방스(Provence), 도피네(Dauphiné), 꼬냑(Cognac), 마렌느(Marennes), 오를레앙(Orléans), 낭뜨(Nantes) 등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직물을 전시하고 있다. 2권은 아발롱(Avallon)과 프라츠(Prats)의 장식용 직물, 페르피냥(Perpignan)과 까탈로뉴(Catalogne)에서 생산된 레이스, 모르타뉴(Mortagne) 산 리본테이프 등을 수록하고 있고, 3권에서는 1732-1736년 하계절용 견직물과 1736-1737년 남성복용 견이나 모직물 그리고 1737년 1월 왕비의 로브 제작에 사용된 벨벳을 볼 수 있다. 4권에는 루앙 산 시아모아즈(siamoise), 꼬

(Caux)에서 생산된 다마와 브로카텔로(Brocattillo), 알렝송(Alençon)의 뚜왈, 까니지(Canisy)의 꾸띠(coutil), 발렝씨엔느(Valenciennes)와 썬로(Saint-Lo) 산 직물 등이, 5권에는 네덜란드나 이태리에서 생산된 견직물, 벨벳, 실크 리본테이프 등이 수집되어 있다. 6권에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리본테이프와 7권에는 1735-1737년 사이에 파리(Paris), 썬떼띠엔느(St-Etienne), 리옹(Lyon), 투랭(Turin), 메쉴스(Messine), 네덜란드나 이태리에서 생산된 다양한 리본테이프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컬렉션 중 1권부터 4권에 분산 수록되어 있는 면직물을 조사하고 총 264점의 목록을 작성하여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았으며,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18세기 프랑스 직물의 종류 및 면 프린트 직물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프린트직물이 수집된 견본의 주를 이루고 있어, 역사적 배경의 대부분이 면 프린트 직물에 관한 고찰에 집중되었다.

둘째, 「리솔리유 컬렉션」의 직물 견본 중 분류된 면직물 264점의 목록을 작성하고, 컬렉션 상에 기록된 정보, 연구자의 실물관찰, 18세기 직물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 참고하고 종합하여 직물의 종류에 따른 명칭, 역사, 섬유조성, 제직특성, 용도, 생산지에 대한 제반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제한점으로 열람시간이 제한적이고 컬러리더기에 의한 색상 측정과 촬영에 의한 문양 전체의 수집 및 분류가 허락되지 않은 관계로 문양과 색상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진행할 수 없었다.

현재 직물 명칭의 표기상 혹은 의미상 해당되는 영어 혹은 한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서 제시하는 직물 용어 및 지역 명칭의 불어 표기를 기본으로 하였다.

## II. 18세기 프랑스 직물의 유형

### 1. 직물의 종류 및 특징

모, 견, 마, 면 등 18세기 프랑스 직물의 종류에 따른 조직, 생산지 및 용도 등 선행연구에 의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모직물의 대부분이 평직, 능직, 변형 능직으로 조직되었고, 견이나 면 등과 혼방하기도 하였다. 드라(drap), 세르쥬(serge), 라틴(ratine), 플란넬(flanelle), 몰롱(molleton), 깔망드(calemagne), 드로게, 도핀느(dauphine) 등 다양한 모직물이 아베빌, 아미양(Amiens), 엘뢰프(Elbeuf), 루비에(Louviers), 랭스(Reims), 썬또메르(St-Omer) 등 주로 프랑스 북쪽에서 생산되었다. 모직물은 평상복, 실내복, 겨울 속치마, 안감 등 일반 서민에서 상류층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직물이며, 모편물은 양말, 장갑, 실내용 모자, 내의, 사냥복 속바지 등으로 사용되었다.<sup>6)</sup>

견직물은 18세기 상반기에 평직의 타프타(taffetas), 싸뽁(satin), 블루르르(velours), 무늬 넣어 제직한 브로카르(brocade)와 다마 등이, 하반기에 더욱 기법이 다양해져서 무늬 넣어 짠 블루르르, 매우 밀도 있게 제직한 평직의 타프타와 물결무늬의 모아레(moiré), 다양한 이랑 조직 그리고 람파(lampas)와 같은 금 은사를 섞어 짠 무늬직 등이 생산되었다. 매우 호화롭고 값비싸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견직물은 시기에 따라 문양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720년경 전에는 사선사방 대칭으로 큰 크기의 직물을 배치하여 툰 온 툰 효과의 다마 조직으로 조용하고 웅장한 느낌의 문양이 주를 이루다가, 1730-1740년 사이에는 식물이외에도 풍경, 건축물, 오브제 등을 첨가하여 더욱 역동적인 문양이 되었다. 1750년경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사람, 장식품, 식물을 사용한 문양이나 인도 면직물의 요소와 결합한 오리엔탈 풍이 등장하였

다. 또 나뭇가지나 꽃문양을 공간을 두고 배치하여 무게감을 덜고 거기에 탑, 다리, 리본, 레이스를 첨가하여 장식성을 더 하였다. 1760년경 이후 작은 꽃무늬를 매우 한적하게 위치시키거나 때로 줄무늬와 함께 배치하여 경쾌하고 우아함이 돋보이게 하였다. 궁중과 상류층의 의복에서부터 가구나 벽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였으며, 파리, 푸르, 리옹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sup>7)</sup>

마직물은 평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거친 아마포나 캔버스는 콜셋, 페치코트 용으로 섬세한 무슬린(moussline)은 슈미즈, 목수건, 소매장식, 머리장식 용으로 사용되었다. 생산지는 북부 브르타뉴(Bretagne)지방과 루앙, 중부 맨느(Main), 피카르디(Picardie), 앙쥬(Anjou), 서부 알자스(Alsace)지방 등이다.<sup>8)</sup>

면직물은 평직, 능직, 변형 능직으로 제작하였고, 마, 견 모직물과 혼방하기도 하여 투왈, 퓨틴(futaine), 바쟁(basin), 무슬린 등 많은 종류로 생산되었다. 프린트 기법으로 다양한 문양을 구사하였으며 옷감, 면교직물은 안감이나 여름 옷감 등으로 사용되었다. 생산지는 북부 루앙, 노르망디(Normandie) 지역과 파리 근교의 주이(Jouy), 중부 알자스와 몰루즈(Mulhouse), 남부 마르세이유, 프로방스 지방 등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었다.<sup>9)</sup>

## 2. 면 프린트직물의 역사적 배경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리솔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 유형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앞서, 수록된 면직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린트직물의 유입과 확산에 따른 산업의 변화, 생산 기술, 문양의 변화 및 용도 등 18세기 프랑스 면 프린트직물의 역사적 배경을 선행연구의 고찰에 의해 조사한다.

### 1) 면 프린트직물 산업

프린트 기법은 인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이미 알려진 직물 장식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16세기 말 17세기 초 포르투갈과 스페인 항해사들에 의해 근동제국과 인도로부터 전해져 17세기 말에 와서야 제조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남동쪽 끝에 위치한 마르세이유 항을 통해서 원사와 직물이 유입되었으며, 당시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 의해 유럽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동인도 회사가 수입한 ‘앵디엔느(indienne)’라고 불리는 이 채색면직물은 경제력 있고 꾸미기 좋아하는 대중들에 의해 소비가 급증하여 시장을 즉시 점유하였다. 따라서 재무상 콜베르(Colbert)에 의해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1664년 면 수입이 법적으로 허가되었다.

수입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호응 때문에 프린트 기술을 유입하여 소규모의 생산이 이루어 졌는데, 1648년 목관으로 프린트직물을 제조한 기록이나 1663년 면 프린트 직물 1500m를 독일로 수출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16세기 이후 카드와 판화제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청색염료 엔디고(indigo)가 보르도 항을 거쳐 유입되는 등 프랑스 자체에서 면 생산의 여건이 갖추어져가던 배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1671년 콜베르의 명으로 ‘모 염색방법’이 발간됨으로 염색기술이 장려되어 면 염색 프린트 기술에 역시 일조하였다고 하겠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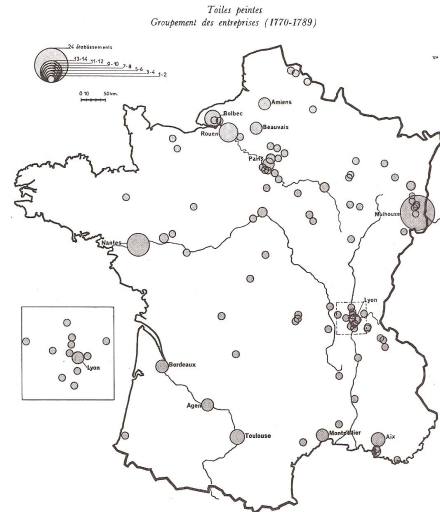
견, 모, 마 생산의 전통직물산업과 경쟁을 이루어 섬유시장을 위협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새로운 형태의 직물에 대해 도처에서 금지령이 내려졌다. 1686년 10월 26일에 발표된 면직물 금지령은 다음과 같다. “면 프린트직물 및 흰 면 생산을 금한다. 프린트에 사용되는 모든 판을 금하며 그리기 기법도 금한다. 또한 수입, 매매, 전시도 금한다.”라는 법령이었다. 계속해서 1689년 5월14일에

는 아마, 대마에 프린트 하는 것을 금했고, 1689년 11월 22일에는 나사의 일종인 면·모교직물의 드로게와 1701년 12월 24일에는 시아모아즈에 프린트를 금하는 등 세부적인 법조항을 늘려갔다. 1717년에는 면직물 착용까지 금지하여 착용 시 일시적 형벌에 처하기까지에 이르렀다.<sup>11)</sup>

여러 차례의 지속적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인도 프린트 면직물의 수입과 모방품의 생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733년 조사에 따르면 24개의 제작소가 생산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 세르쥬 샤상느(Serge Chassagne)(1980)<sup>12)</sup>의 연구에 의하면 몽펠리에(Montpellier) 이띠에 에 르블(Ittier et Reboul) 상점의 직물거래량이 1751년에는 면, 견, 모직물 순으로 많았다가, 1761년에 이르러서는 면 프린트직물을 주로 거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증가하여 매출총계 역시 3배에 가까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호기심 많고 변화를 즐겨하는 귀족과 부르주아 층에서 내에 급격히 소비가 증가되었다. 또 다니엘 로슈(Daniel Roche)(1989)<sup>13)</sup>의 재무조사서 통계에 따른 파리지역 면직물 로브 사용량을 살펴보면, 18세기 말에 이르러 귀족, 부르주아 계층 뿐 아니라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면직물 소비량의 급증이 팔목할 만 하였다.

이와 같은 수요에 의해 국가 경제보호를 위한 재무상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조치는 결과적으로 또 실재적으로 실패에 이르게 되어 1759년에는 면직물 수입, 사용, 생산이 허가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오래도록 금지되다가 처벌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손에 넣어진 프랑스 고객들의 고집스런 요구 앞에 1759년에 와서야 금지령이 철회되었다.<sup>14)</sup>

이후부터 허가된 프린트 직물공장이 프랑스 전역에 본격적으로 세워져 프랑스 궁정, 도시, 지방으로 프린트 면직물을 매우 빠르게 공급하였다.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1970)과 에르네스



<그림 1>  
1770-1789년 프랑스 면 프린트 직물 공장 분포도  
(출처: 『Toiles de Nantes des XVIIIe et XIXe siècles』, 1978, p.9)

트 라부르스(Ernest Labrousse)의 연구(1970), 면 프린트 직물 공장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그림 1>15), 프랑스 면직물 생산 산업은 물루즈, 낭뜨, 파리와 북부 루앙, 노르망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며 급속히 발전하였고, 유입지역인 프랑스 남부의 리옹, 오랑주(Orange),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마르세이유, 뭄루즈 등에도 크고 작은 제작소들이 분포하였으며, 중부 앙제(Angers), 부르즈(Bourges), 브르고뉴(Bourgogne), 샴빠뉴(Champagne)와 남서부 보르도(Bordeaux), 랑그독(Languedoc) 등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 생산 되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 2) 면 프린트직물 생산기술

조직변화나 자수 외에 직물에 장식하는 방법인 프린트 기술은 햇빛, 세탁, 공기에 견디는 성질이 비교적 약하고 장식이 질적으로 우수하지는 못한 단점은 있으나,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직물을 빨리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에 대한 공급의 대응력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프린트 제조기술의 비밀을 정확히 알지 못해 대부분의 아뜰리에에는 아마나 대마 또는 거친 면에 프린트 상태가 질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직물들을 생산하였다. 1648년 동양과의 교역을 오랫동안 하여온 마르세이유에 첫 번째 아뜰리에가 세워졌고 1664년 이후 제도화되지 못했지만 프랑스 남부 랑그독, 비바라레(Vivarais), 썽똥쥬(Saintonge) 등에 다른 작업장들이 세워지며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했다. 1759년 이후 면직물 공장이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지고 번창했으며 창작과 재생산 두 차원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평민층을 위해서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사용되었던 지난 모델을 재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된 것이다.<sup>16)</sup> 1763년에는 파리 근교 주이 앙 조자스(Jouy-en-Josas)에 오베르캄프(Oberkampf)가 설립한 공장에서는 목판 대신 동판을 사용하는 등 매우 괄목할 만한 생산력과 기술발전을 갖추게 되었다.<sup>17)</sup>

프린트 기법은 손으로 직접그리기의 ‘엥프레시옹 아 라 망(impression à la main; hand printing)’과 목판 혹은 동판 프린팅의 ‘엥프레시옹 아 라 플랭슈(impression à la planche; wood block or cooper plate printing)’ 그리고 동판 롤러 프린팅의 ‘엥프레시옹 앙 롤로(impression en rouleau; cooper roller printing)’가 있다. 목판 프린팅은 문양을 나무판에 양각으로 조각한 후 반복하여 찍어 무늬를 내는 방법으로 색의 가지 수 만큼 목판을 겹쳐 프린팅하여 결과물을 얻는다. 목판 인쇄 후 붓으로 리터치를 더하는 식으로 기법을 섞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동판프린팅은 음각 인쇄의 한 형태로, 동판에 세밀한 선들로 조각한 곳으로 염료가 스며들게 한 후 판 표면의 염료는 제거하고 압력을 가해 찍어 굵어진 선들에 배어 있던 염료에 의해 문양이 프린트되는 기법이다. 섬세한 문양의 표현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판형의 크기가 목판보다 큰 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큰 문양이나 반복의 범위를 크

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단색 프린트만 가능하여 목판 인쇄를 겹쳐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동판 롤러 프린팅 기법은 천 폭 크기의 롤러 동판으로 반복 문양을 계속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염료는 자주색(pourpre)은 빨고둥, 용혈수나무 진액, 리트머스 이끼 등으로부터, 빨강색(écarlate)은 연지벌레에서 짜낸 양홍과 꼭두서니로부터, 청색(indigo)은 인디고 염료, 노랑색(jaune)은 사프란 염료로부터, 검정색(noir)은 철을 발효시켜 얻었다.<sup>18)</sup>

18세기 당시 다양한 기법으로 생산된 직물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존재하였다. 손으로 직접그리기(impression à la main)에 의해 생산된 직물을 ‘투왈 뽕뜨(toile peinte)’, 목판 혹은 동판의 프린팅(impression à la planche)이나 롤 타입 동판 프린팅(impression en rouleau)에 의해 생산된 것을 ‘투왈 엥프리메(toile imprimé)’라고 하였다. 인도에서 유입된 프린트 직물을 ‘엔디엔느’라 하였는데 후에 인도 프린트 직물을 모방하여 생산한 직물 역시 동일하게 지칭, 결국 프린트직물을 엔디엔느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sup>19)</sup> ‘친즈(chintz)’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데, 산스크리트어 ‘chitra’와 힌두어 ‘chint’에서 유래되고 17세기에 영국 용어로 사용된 얼룩덜룩하다는 뜻의 ‘chint’가 프랑스에서 ‘chintz’로 적용되고 변형된 것이다. 동인도 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엔디엔느를 가리키며 특히 번들거리는 직물을 말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광택처리 된 인도 프린트 면직물을 뜻한다고 하겠다.<sup>20)</sup> 또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쉬네 아 라 브랑슈(chiné à la branche)’라고 하는 염색기법을 사용하여 면이나 마 혹은 견직물을 장식하였다. 실타래를 침염하여 위사로 걸고 여기에 단색 경사로 제직하게 되면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점진적인 염색효과를 형성하게 되는 이카트(ikate)와 흡사한 기법으로 18세기 말에 와서는 위사에 직접 그림을 그린 후 제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기법의 면 프린트 직물은 프린트 기술자와 문양 창작자가 연합하여 생산되는데, 유능한 여러 작가들에 의해 문양의 밑그림이 고안되었다. 문양을 창작에 대한 기초 법칙을 두고 있었는데, 균형과 조화가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음영을 사용하여 입체감이 잘 표현되도록 하며, 한 가지 색상이 지배적이지 않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기를 권장하였다. 그림이 직물에 프린트될 때 변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린트 기술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였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파리를 방문하여 썽 또노레(St. Honoré) 거리의 재단업, 양재업 상점을 둘러보고, 연극, 오페라 등을 관람하고, 식물원이나 왕립 타피스트리(tapisserie) 제작소인 고블랭(Gobelin)의 염색공장과 쉼브르(Sèvres)의 도자기 제작소를 방문하는 등 창작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또 화가를 만나 그림이나 판화를 사기도 하였고 그림, 조각, 기하학, 식물에 관한 수업을 듣기도 하였다.<sup>21)</sup>

인도에서 유입된 프린트 직물이 프랑스 내에서 생산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국의 수요에 맞도록 문양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생산 초기에는 인도 면 프린트 직물의 모티브를 모방하였고, 점차 앞서 살펴본 프랑스 견직물 모티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 이국적인 모티브의 꽃문양은 물론, 곡선을 이루는 가지와 큰 꽃무늬의 루이 15세 스타일 모티브를 동인도 회사로 보내어 유럽인들에게 거부감이 일지 않도록 제작하여 수출하였고, 점차 더 작은 크기 꽃무늬가 배치된 루이 16세 스타일 면 프린트 직물이 생산되었다. 18세기 말엽 주이 앙 조자스에서 동판 프린팅기법으로 생산된 직물에서는 풍경이나 중국풍 문양 등도 사용되었고, 19세기 초에는 엠피어 스타일 문양도 등장하였다. 전반적으로 견직물에 비해 세련되지 못한 색상이지만 보라,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었다.<sup>22)</sup>

### 3) 면 프린트 직물의 용도

다양한 유형의 의복에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면 프린트 직물은 18세기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672년 잡지 『메르퀴르 드 프랑스(Mercure de France)』에 의하면 금·은사와 실크로 제작된 실내복 데자비에(déshabillé) 만큼 비싼 면 프린트 직물 실내복 엔디엔느 데자비에(indiennes déshabillé)를 남녀 모두가 착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몰리에르의 작품에서도 면 프린트 직물로 된 실내복 착용에 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2><sup>23)</sup> 거의 폭발적인 유행을 타게 된 면 프린트 실내복은 당시 금지령으로 단속 하에 있던 상태라서 파리에서 이것을 입은 여자가 경찰에 쫓겨 창문으로 도망하다 잡히기까지 하였다고 한다.<sup>24)</sup> 시간이 더 함에 따라 점차 더욱 다양한 유형의 의복으로 면 프린트 직물의 사용의 폭을 넓혀 갔다. 1716년 썽 씨몽(Saint Simon)은 “채색 면직물(toiles peintes) 의상은 모든 법률보다 우세하여…, 고위층 부인들과 그를 모방하는 사람들은 벌칙과 대중의 경멸적인 빈축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착용했다”<sup>25)</sup>고 기록하고 있다. 네슬레(Neslé) 공장부인은 무도회에 인도자수를 한 로브(robe)를 공공연히 입고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sup>26)</sup>

여러 박물관에 보관된 면 프린트 직물로 만든 1760년경의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나 1770년경의 로브 아 령글레(robe à l'anglais), 오래도록 평민들에 의해 입혀진 까자깡(casaquin)과 쥐뿔(jupon) 그리고 깡아 까뿔송(cape à capuchon) 등의 보존복식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3, 4><sup>27)</sup> 18세기에는 남자들 역시 우아한 외향에 몰두하여 다양한 치장 법을 항상 모색하였기 때문에 여름 쥐스또꼬르(justaucorps)에 아름답고 경쾌하고 면 프린트 직물을 사용하였다.<sup>28)</sup> 1736년 기엔느(Guyenne)에서는 아버지에서 하인까지 모든 가족이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sup>29)</sup>, 1754년 장 베르네(Jean



<그림 2>  
실내복 데자비에  
(출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1698)



<그림 3>  
엔디엔느의 영향을 받은 면 프린트  
직물로 된 로브 아라 프랑세스, 1760  
(출처: 파리시립의상박물관)



<그림 4>  
1770년경 프로방스산 면 프린트 직물로  
된 쥐뿔과 짚아 까뻬송  
(출처: 'En Jupou Piquet et Robe  
d'Indienne', 1987, p.54)



<그림 5>  
시아모아즈 소재의 까라꼬를 입은  
마르세이유 시장의 상인  
(출처: Musée de la Marine, 1775)



<그림 6>  
프랑스 남부 아를르 지방의 면 프린트 의상을 입은  
직공들 (출처: Musée Réattu, 1754)



<그림 7>  
주이(Jouy)의 면 프린트 직물의  
가구 (출처: Musée de la Toile  
de Jouy, 1785)

Vernet)의 『마르세이유 항구의 전경』에서 거리의 상인들이 면 프린트 직물을 입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5>.<sup>30)</sup> 고가의 무늬를 넣어 잔견직물이나 자수 외에 무늬로 직물을 장식할 방법이 그때까지 따로 없었던 프랑스에서는, 생산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세탁에도 반영구적인 면 프린트 기법의 도입으로 서민 계층에게까지도 의복물 질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이 허용되게 되었다. 1770-1780년 사이 아를르(Arles)의 화가 앙투안 라스팔(Antoine Raspal)이 그린 초상화와 아뜰리에 광경에서 매우 다양한 문양의 엔디엔느의 로브와 까라

꼬(caraco)를 찾아 볼 수 있다<그림 6>.<sup>31)</sup>

면 프린트 직물 유행에 대한 영향력은 의상뿐 아니라 당대의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하는 모든 장식에 적용되었다. 루이 14세 당시 살롱문화의 주역인 뽕빠두르(Pompadour) 공작부인이 기거하고 있는 성의 가구에도 이 면 프린트 직물을 비밀리에 사용되었다 하고<sup>32)</sup>, 1785년경 오베르캄프가 운영하는 주이 영 조자스 공장에서 생산된 면 프린트 직물로 제작된 침대커버와 침대지붕도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그림 7>.<sup>33)</sup>



### III. 「리슐리유 컬렉션」고찰에 의한 면직물 특성

#### 1. 「리슐리유 컬렉션」고찰에 의한 면직물 의 종류 및 특징

「리슐리유 컬렉션」에 나타난 직물들은 당시의 산지, 조성 혹은 조직, 문양, 용도 등에 따라 통용되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8세기 직물에 대해 규명한 현재의 연구 결과물들과 일관된 분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용어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물관찰과 컬렉션 고찰에서 출발하여 18세기 직물 선행 연구 및 사전적 정의를 종합한 후 수록된 직물의 종류에 대한 특성 규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프랑스어 사전 「쁘띠 로베르(Petit Robert)」<sup>34)</sup>에 의해서는 사전적 정의와 문학서에 나타난 시대별 표현 등을 참조해볼 수 있고, 모리스 르로와르(Maurice Leloir)(1951)의 「복식사전」<sup>35)</sup>에서는 정의 및 용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직물역사사전」(1994)<sup>36)</sup>은 조직, 조성, 용도, 역사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고대직물 연구소(Centre Internationale d'Etude des Textiles Anciens)의 「직조 기법 연구」와 「프랑스 직물용어」(1959)<sup>37)</sup>는 프랑스 전통직물 기술연구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훌륭한 결과물들이다. 니콜 펠그랭(Nicole Pellegrin)(1989)의 복식 사전 「자유의 의상」<sup>38)</sup>과 프랑스 국립민속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et Traditions Populaires)에서 개최되었던 민속복식학회의 도록 「복식, 습관」(1987)<sup>39)</sup>은 직물을 포함한 프랑스 복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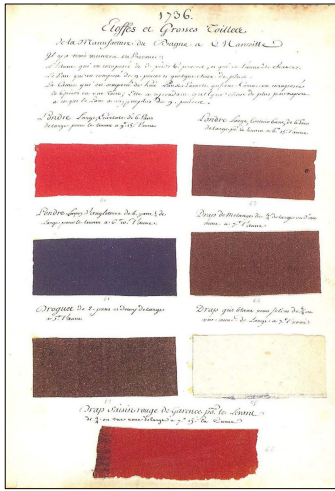
##### 1) 뽀왈(toile)

엠펜다는 뜻의 라틴어 ‘텔라(tela)’와 프랑스 고어 ‘테이유(teille)’가 12세기에 들어와 ‘뽀왈(toile)’로 정착되었다.<sup>40)</sup> 그러나 용도 및 기법 그리고 각 시대나 지역에 따라 명칭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였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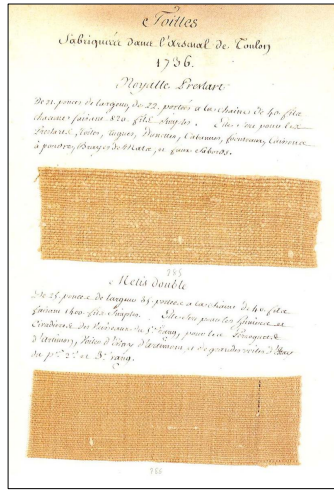
경사와 위사를 위아래로 교차시켜 짜는 방법의 간단한 평직으로 안팎의 구별이 없다. 위사와 경사의 교차점이 많아서 천이 질기지만 잘 구겨지며 표면이 다소 거칠고 광택이 적으나, 질기다는 특성 때문에 실용직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응용한 많은 종류의 천이 만들어 졌다. ‘뽀왈을 짜다(tisser la toile, une toile.)’, ‘뽀 뽀왈(toiles de coton)’ ‘대마 뽀왈(toile de chanvre, d'étaupe de chanvre)’, ‘황마 뽀왈(toile de jute)’, ‘아마 뽀왈(toile de lin, de fil lin)’, ‘교직 뽀왈(toile métisse)’, ‘굵은 뽀왈(grosse toile, tissée lâche)’, ‘가늘고 촘촘한 뽀왈(toile fine, serrée)’, ‘표백되지 않은 뽀왈(toile écrue)’로 표기되어 온 것으로 보아 대마, 아마, 황마, 뽀 혹은 교직으로 조성되고 실의 굵기나 밀도를 달리하여 제작하였으며 실의 정련 정도를 달리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가장 단순한 구조로 조직되고 가장 다양한 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sup>42)</sup>, 모와 견 혹은 교직하여서도 뽀왈을 제작하였다<그림 8><sup>43)</sup> 위사와 경사의 굵기와 밀도를 달리함으로써 변화 있는 직물을 만들었는데, 포플린이 이러한 조직을 가진 평직물로서 경사보다 굵은 위사를 사용하고 경사의 밀도를 위사의 2배 정도로 하여 위사 방향의 이랑이 나타난다.

뽀왈은 인류 탄생을 참조해야할 정도로 기원 찾을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유형의 직물이며, 기초 농업 시대부터 첨단 산업시대에 이르기 까지 그 사용법 목록을 작성하기 불가능할 만큼 다양하게 생산되고 사용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18세기에 매우 많은 곳에서 생산되어 안감을 포함한 의류이외에도 침장류, 포장재, 가방, 패턴, 돛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고<그림 9><sup>44)</sup>, 고무를 입히거나 종이와 배접하여 쓰기도 하였다. 또 모 뽀왈은 일반 의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견 뽀왈은 의류나 란제리용으로 사용되었다.<sup>45)</sup>

「리슐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뽀왈은 무늬없는 ‘뽀왈 유니(toile uni)’, 체크 무늬의 ‘뽀왈 아 가로



<그림 8>  
모와 교직하 마르세이유 산 뒤풀  
(출처: 「리슐리유 컬렉션」, 1736)



<그림 9>  
마와 교직하여 뒀에 사용된 뒤풀  
(출처: 「리슐리유 컬렉션」, 1736)



<그림 10>  
루앙 산 시아모아즈  
(출처: 「리슐리유 컬렉션」, 1737)

(toile à carreaux)', 줄무늬 '뒤풀 레이에(toile rayé)', 능직 '뒤풀 크로와제(toile croisé)', 브로케이드 뒷면의 효과가 나는 문양의 면 '뒤풀 드 꼬퐁 브로셰(toile de coton broché)', 프린트무늬 '뒤풀 드 파송 앙디엔느(toile en façon indienne)', 로모아 지방산 '뒤풀 드 로모아(toile de Romois)', 메리 지방산 '뒤풀 드 메리(toile de Meury)'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면 혹은 마로 평직 혹은 능직으로 제작되었고 무늬가 없거나 줄무늬, 체크무늬, 인도풍 무늬의 프린트직물을 지칭하고 있다. 또 주생산지는 마르세이유, 루앙, 앙티브(Antibes), 메슬레, 로모아(Romois), 메리(Meury)이며 옷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2) 쉬노아즈(chinoise)

프랑스어로 중국사람, 중국어 또는 중국적 취향을 의미하는 '쉬노아즈(chinoise)'가 프랑스에서는 17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중국을 포함한 동양풍을 뜻하는 용어로 주로 쓰였다.<sup>46)</sup>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도자기, 벽지, 가구, 옷감 등 장식미술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었으며, 여기서는 당시

직물의 주된 모티프인 여성적이고 섬세한 꽃무늬에 중국인, 탐, 건축물, 다리, 배, 동양적 형태와 색상의 꽃무늬 등 동양적인 모티프를 결합하여 동양에 대한 환상, 이국적인 감성을 표현한 직물을 말한다.<sup>47)</sup> 「리슐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쉬노아즈는 평직의 면 프린트 직물로 옷감으로 사용되었고 루앙에서 생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3) 시아모아즈(siamoise)

이미 1534년경부터 북부 노르망디 지방에서 아마, 대마 때로는 견과 혼방으로 생산 해오던 줄무늬 직물이 있었으나, 사바리 드 브를롱(Savary de Bruslons)의 「상업사전」(1759-1765)에 의하면 시아모아즈는 “1687년 시암(Siam)의 대사 방문에 의해 프랑스에 처음 소개된 실크와 면을 교직하 가는 머슬린(moussline)을 말하며 명칭이 지명 시암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sup>48)</sup> 「리슐리유 컬렉션」<그림 10><sup>49)</sup>에는 ‘꼬뜨나드 혹은 시아모아즈(cotonade ou Siamoise)’는 마를 위사로 하고 염색한 면을 경사로 하여 평직으로 제작함으로 줄무늬를 이룬 옷감이며 생산지는 낭뜨, 루앙과 메슬레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울과 면 교직으로 1/2 aune에서 4/5aune 폭의(1aune=1.188m) 시아모아즈가 루앙에서 7000 필이 생산되었다. 장미 빛이나 연분홍색 염색이 프랑스에서 불가능하다”<sup>50)</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처음에는 선염 면과 아마 혹은 대마나 미색 실크를 섞어 짜다가, 모직과 함께 교직하기도 하고, 인도면이 유입되었을 당시는 면에 줄무늬를 나염하기도 하였다.<sup>51)</sup> 「직물역사사전」에 의하면 마를 위사로 하고 ‘쉬네 아 라 브렁슈(chiné à la branche)’ 기법으로 염색한 면을 경사로 써서 줄무늬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고 한다.<sup>52)</sup>

#### 4) 엔디엔느(indienne)

인도 날염 면직물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로부터 수입되던 엔디엔느의 프랑스산 모조품 역시 엔디엔느라고 불렀다.<sup>53)</sup> 「리슐리유 컬렉션」은 섬세한 프린트의 ‘엔디엔느 핀 앙프리에메(indiennes fines imprimés)’, 인도산 혹은 기니산을 뜻하는 ‘엔디엔느 혹은 귀네(indiennes ou Guiné)’, 인도 프린트무늬의 두왈 ‘투왈 드 파송 엔디엔느(toile en façon indienne)’, 썸 조셉(St. Joseph) 생산의 ‘엔디엔느 썸 조셉(indienne St. Joseph)’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그림 11>.<sup>54)</sup> 옷감으로 사용된 평직의 면 프린트 직물이며 젠느(Gennes)와 마르세이유가 주 생산지이다.

#### 5) 부탄느(boutanes)

「직물역사사전」에 의하면 키프로스의 두왈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sup>55)</sup> 평직 면직물로 침장구류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프랑스 남부 몽뻬리에와 앙띠브가 주생산지이다.

#### 6) 퀴텐느(futaine)

라틴어 ‘푸스테아넘(fusteanum)’이 어원으로, 중세 ‘푸스타(fustat)’ 혹은 ‘포스타(fostat)’로 불리었으며, 이집트 카이로 지역에서 유래되었거나 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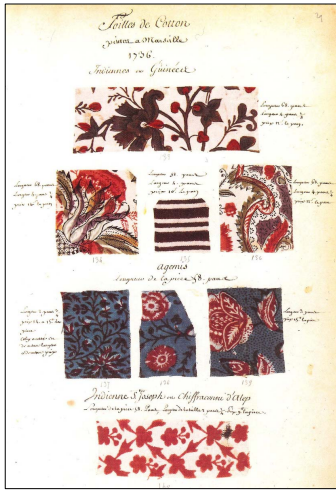
군 전쟁 당시 동양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추정한다.<sup>56)</sup> 중세에는 마 혹은 모와 섞어 짠 면직물을 지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면의 교직 비율을 증가하여 생산하였다. 평직, 능직, 모아레 혹은 매우 고급스럽게 짠 직물이다.<sup>57)</sup> 12세기 초반 북부 이탈리아에서 주로 생산되다 점차 베니스나 제노바가 주산지가 되었고, 동양으로 수출되기까지 하였다. 17세기부터 매우 섬세하고 기모가 있는 면직물을 퀴텐느라 하였고, 속치마, 캐미솔, 안감으로 사용되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노르망디 지방, 샹뵈뉴, 리옹, 보졸레(Beaujolais) 지방이 주 생산지였다.<sup>58)</sup> 「리슐리유 컬렉션」에 의하면 루앙이 주산지인 면과 마를 교직한 섬세한 능직으로 옷감과 안감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7) 바쟁(baz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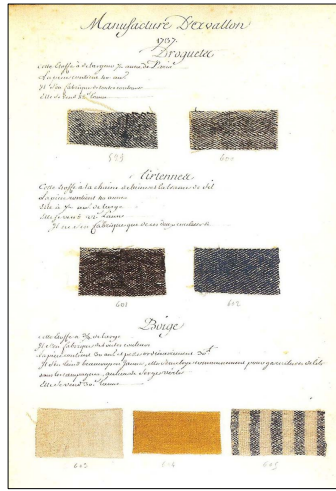
1580년 리옹에서 고안된 마와 면을 섞어 짠 직물로 고안자의 이름을 따거나 프랑스 고어 ‘봄바쟁(bombasin)’ 혹은 라틴어 ‘봄복스(bombux)’, ‘봄바시엄(bombacium)’, ‘봄바이온(bombaion)’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어 명명되었다. 「리슐리유 컬렉션」에 의하면 매우 적은 량의 마를 위사에 섞어 짠 능직의 면직물 소재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사보다 굵은 경사를 사용하여 가로 이랑을 형성하는 조직이나 타프타와 능직을 번갈아 줄무늬가 되도록 짜기도 하였고, 기모직으로 제직도 하였다. 퀴텐느과 매우 유사하며, 루앙, 트로와(Troyes), 보졸레에서 생산되었고, 폭이나 문양에 따라 생산지 별 특성을 나타내었다.<sup>59)</sup> 캐미솔이나 속치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류에 매우 대중적으로 사용되었고, 침장구 용으로도 사용되었다.<sup>60)</sup>

#### 8) 꾸띠(coutil)

1693년 4월 7일 법령에 따르면 노르망디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하였다고 한다. 18세기 아마, 대마와 면을 교직하여 매우 탄탄하고 밀도 높게



<그림 11>  
마르세유 산 엔디엔느  
(출처: '리슬리우 컬렉션', 1736)



<그림 12>  
오를레앙 혹은 아발롱 산 꾸띠  
(출처: '리슬리우 컬렉션', 1736)



<그림 13>  
모와 교직한 까디  
(출처: '리슬리우 컬렉션', 1736)

짠 평직물을 말하고, 때로 능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sup>61)</sup> 루앙, 오를레앙, 샤희 등지에서 0,78m 혹은 0,88m 폭으로 한필에 156m이나 86m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되었는데, 북부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지역에서는 0,59m의 좁은 폭으로 더 섬세한 꾸띠가 생산되어 수입하기도 하였다.<sup>62)</sup> 「리슬리우 컬렉션」에는 오를레앙 산 ‘꾸띠 도를레앙(coutils d’Orléans)’과 샤희 산 ‘꾸띠 드 샤희(coutils de Chasse)’로 명칭을 기록하고 있다. 콜셋, 바지, 앞치마를 위해 질 좋은 아마와 교직한 꾸띠를 사용하였고, 대마와 섞어 짠 두꺼운 것은 가구류, 침장류, 군대용 텐트 등 다양한 용도로 생산하였다<그림 12>.<sup>63)</sup> 또 셔츠용으로 아마를 기본으로 대마사를 넣어 검정색과 흰색 혹은 파랑색과 흰색 줄무늬를 제작하였다.<sup>64)</sup>

### 9) 다마(damas)

다마는 같은 무늬를 앞면은 평직이나 능직 바닥에 수자직 무늬이고 뒷면은 수자직 바닥에 평직이나 능직 무늬가 되도록 제작하여, 양면의 무늬는 같으나 광택 효과가 반대로 짜여 지는 직물이

다.<sup>65)</sup> 「직물역사사전」의 참조에 의하면 다마는 시리아 수도의 이름 다마스쿠스에서 유래되었고, 5세기경부터 중국이나 페르시아 등의 동양으로부터 서양으로 수입된 매우 값진 견직물이다. 14세기 부르고뉴 궁정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15-16세기 스페인과 이태리의 베니스(Venise), 루카(Lucques) 등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15세기 말 프랑스에 유입되어 루이 11세에 의해 뚜르와 리옹에서 생산이 장려되어 주 생산지가 되었다. 18세기 루앙, 아베빌, 샬롱 쉬르 마르느(Châlons-sur-Mame), 님, 꼬 등지에서 면으로 생산하여 널리 보급되었고, 뚜르와 리옹에서는 견으로 값진 다마를 생산하였다. 다마 조직을 응용한 다양한 기술로 단순하고 축소된 문양이 라제리용 면직물 생산에 많이 사용되었다. 19세기에는 자카드 직기가 다마의 제작을 쉽고 용이하게 하여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였다.<sup>66)</sup>

「리슬리우 컬렉션」에는 생산지를 밝힌 ‘다마 드 꼬(damas de Caux)’, 기법을 뜻하는 ‘다마세(damassé)’, 가구용을 뜻하는 ‘다마 뷔르 메블(damas pour meuble)’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마름모 사방 연속 무늬의 변형 능직의 면으로 침장구용으로

사용되며 루앙과 아베빌이 생산지라고 밝히고 있다.

#### 10) 까디(cadis)

생산 도시의 이름 까디(Cadix)에서 직물명이 유래되었다. 0,48m, 0,55m 나 0,60m의 좁은 폭으로 매우 저렴한 흰색 혹은 검정색 기모직물로 섬세하게 제작하여 플라넬과 유사하였다.<sup>67)</sup> 기모가 적고 매우 가볍고 섬세한 까디는 종교복에 주로 사용되었고, 좀더 두껍고 강한 것은 켈로뜨(culottes)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구에도 사용하였다. 중남부 셰벤느(Cévennes), 오베르뉴(Auvergne), 뽀(Puy), 랑그독 등지에서 생산되고, 리옹, 몽또방(Montauban), 까스트르(Castres), 알비(Albi), 아를르, 타라쑹(Tarascon)에서 거래되었다.<sup>68)</sup> 「리슬리유 컬렉션」에는 면과 모를 교직하여 능직으로 제작하였고 기모를 형성할 경우가 많아 겨울 옷감으로 사용되었으며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림 13>.<sup>69)</sup>

#### 11) 뽀뽀린(pop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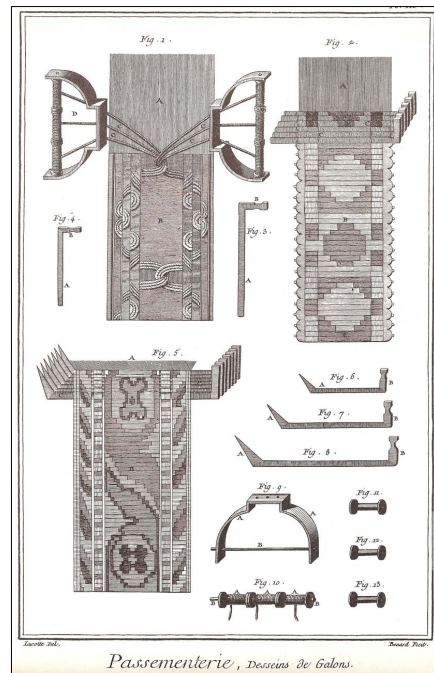
프랑스어 사전에 의하면 1670년경에는 이태리어 빠빠리나(papalina)로 1735년경에는 영어 뽀뽀린(poplin)이나 프랑스어 빠뽀린(papeline) 혹은 뽀뽀린(popline)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sup>70)</sup> 견 위사, 모경사의 촘촘한 평직으로 제작되다가 18세기 중엽 뽀뽀린은 모경사로, 후에는 면이나 면과 견 교직으로 생산되었다.<sup>71)</sup> 이집트면을 사용하기도 하여 란제리나 셔츠 제조에 사용되었고, ‘뽀뽀린 남자 셔츠 (chemise d’homme en popeline)’ 라는 표현이 있다.<sup>72)</sup> 18세기에 더블린(Dublin)에서 직조기 3000대를 사용할 정도의 생산을 하였고, 이외에도 스위스, 독일, 러시아와 프랑스의 리옹, 투르코잉(Tourcoing) 그리고 루베(Roubaix) 등지에서 경쟁적으로 생산되었다.<sup>73)</sup> 「리슬리유 컬렉션」은 면과 견을 평직으로 교직하였고, 안감 혹은 속옷으로 사

용된 뜻인 ‘뽀뽀린 두블르(popeline double)’로 명칭을 썼으며, 생산지는 빠르뽀냐으로 기록하고 있다.

#### 12) 빠스멍띠에(passementiers)

「리슬리유 컬렉션」은 폭이 좁고 밀도 있게 짠 장식용 리본테이프 빠스멍띠에 싸띠나드 몽띠슈(passementiers satinades montichoux)를 수록하고 있다. 면과 견을 섞어 짰고,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배합하여 매우 경쾌한 느낌으로 직조하였다. 일반 직조기와 다른 직조기가 사용되었<sup>74)</sup>, 루앙, 뽀롱 등지에서 생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림 14>. 이외에도 손수건 ‘무쇼와르 아 따바(mouchior à tabac)’와 자수된 레이스 ‘꼬똥 브로데(coton brodé)’도 수록하고 있다.

이상 「리슬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의 종류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



<그림 14>  
빠스멍띠에 (출처: 'L'encyclopédie Diderot et d'Alembert, Arts des Textiles', 1751, p.XI)

<표 1> 「리솔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의 종류 및 특징

종 류	특 징					
	「리솔리유 컬렉션」에 기록된 명칭	조 성	조 직	용 도	생산지	비 고
투왈 (toile)	투왈 유니(toile Uni) 투왈 아 까로(toile à carreaux) 투왈 레이에 (toile rayé) 투왈 크로와제(toile croisé) 투왈 드 꼬퐁 브로쉐(toile de coton broché) 투왈 드 파송 앵디엔느(toile en façon indienne) 투왈 드 로모아(toile de Romois) 투왈 드 메리(toile de Meury)	면 혹은 마	평직 능직	옷감	마르세이유 루앙 앙띠브 메슬레	프린트직물
쉬노아즈 (chinoise)	쉬노아즈(chinoise)	면	평직	옷감	루앙	프린트직물
시아모아즈 (siamoise)	꼬뜨나드 혹은 시아모아즈 (cotonade ou siamoise)	면·마 교직	평직	옷감	루앙 메슬레	마를 위사로 하고 염색한 면을 경사로 줄무늬를 이룸
앵디엔느 (indienne)	앵디엔느 핀 앙프리메(indiennes fines imprimés) 앵디엔느 혹은 귀네 (indiennes ou guiné) 투왈 드 파송 앵디엔느(toile en façon indienne) 앵디엔느 썸 조젠프(indienne St. Joseph)	면	평직	옷감	젠느 마르세이유	프린트직물
부탄느 (boutanes)	부탄느(boutanes)	면	평직	침장구	앙띠브	
퓌텐느 (futaine)	퓌텐느(futaine)	면·마 교직	능직	옷감 안감	루앙	바쟁보다 더 섬세함
바쟁 (basin)	바쟁(basin)	면·마 교직	능직	옷감 침장구	루앙	위사보다 경사가 굵어 줄무늬를 이룸
꾸띠 (coutil)	꾸띠 도를레앙(coutils d'Orléans) 꾸띠 드 샤흐(coutils de Chasse)	면·마 교직	평직	롤셋 침장구	오를레앙 루앙	
다마 (damas)	다마 드 꼬(damas de Caux) 다마세(damassé) 다마 뷔르 메블(damas pour meuble)	면	변형 능직	침장구	루앙 아베빌	마름모 사방 연속 문양
까디 (cadis)	까디(cadis)	면·모 교직	능직	옷감 겨울옷감	프로방스	기모를 형성할 경우가 많음
뽀쁠린 (popeline)	뽀쁠린 두블르(popeline double)	면·견 교직	평직	속옷	베르베낭	
빠스멍띠에 (passementier)	빠스멍띠에 싸띠나드 몽띠슈 (passementiers satinades Montichoux)	면·견 교직	장식제 조기법	장식	루앙 똘롱	

## 2. 「리슐리유 컬렉션」고찰에 의한 면직물의 특성에 따른 분석

<표 2>의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슐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의 종류는 조직과 조성을

달리한 부탄느가 1점, 뷔텐느와 바쟁이 8점, 꾸띠가 9점, 다마 13점, 까디 7점, 뽀쁠린 1점과 빠스명띠에 10점이 수록되어 있다. 또 교직하지 않은 평직 투왈, 쉬노아즈, 시아모아즈, 앙디엔느 등 다양

<표 2> 「리슐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 목록 (총264점)

건본번호	명 칭	조 성	폭(aune)	생산지
41	꼬똥 브로테(coton brodé)	면		마르세이유
74, 75, 78, 80, 90-93, 290	꼬또닌(cotonine)	마·면 교직		반느
126-136	앙디엔느 혹은 귀네(indiennes ou guiné)	면		마르세이유
137-139	아제미(agemis)	면		마르세이유
140	앙디엔느 썸 조셉(indienne St. Joseph)	면		마르세이유
290, 293	꼬또닌(cotonine)	마·면 교직		똘롱
361	다마 뿌르 메블(damas pour meuble)	면		아베빌
374-383, 454	투왈 드 메리(toile de Meury) 투왈 레이에(toile rayées) 투왈 유니(toile uni) 투왈 크로와제(toile croisé)	면		앙띠브 마르세이유
384	부르즈 드 꼬똥(bourgs de coton)	면		앙띠브
393	부탄느(toutane)	마·면 교직		앙띠브
408-418	꼬또나드 혹은 시아모아즈(cotonade ou siamoise)	면		메슬레
419-427	투왈 아 까로(toile à carreaux)	면		메슬레
555-561	꼬똥 레이에(coton rayé)	면		오를레앙
428-434	까디(cadis)	마·면 교직		프로방스
610	꾸띠 도를레앙(coutils d'Orléans)	마·면 교직	2/3	오를레앙
635	뽀쁠린 두블르(popeline double)	건·면 교직		빠르빠냥
2117-2159	시아모아즈(siamoise)	면	1/2, 1/4	루앙
2160-2209	투왈 아 까로(toile à carreaux) 투왈 레이에 (toile rayé)	면	1/2	루앙
2210-2217	꾸띠 드 샤흐(coutils de Chasse)	면	1/2	루앙
2226-2237	투왈 아 까로(toile à carreaux) 투왈 레이에 (toile rayé)	면		루앙
2242-2248	무쇼와르 아 따비(mouchior à tabac)	면	3/4	루앙
2253-2258, 2263-2266	다마 드 쾨(damas de Caux)	면	1/2	루앙
2259-2262, 2267-2272	빠스명띠에 싸띠나드 몽띠슈 (passementiers satinades Montichoux)	건·면 교직	1/2	루앙
2273-2274	다마세(damassé)	마·면 교직		루앙
2275, 2278, 2280, 2292	에또프 아 부께(étouffe à bouquets)	마·면 교직	1/2	루앙
2276, 2277, 2293, 2294	에또프 필 에 꼬똥(étouffe fil et coton)	마·면 교직		루앙
2279, 2281, 2286, 2289, 2290, 2291	쉬노아즈(chinoise)	마·면 교직	1/2	루앙
2282, 2283	투왈 드 꼬똥 브로쉐(toile de coton broché)	마·면 교직	1/2	루앙
2284, 2285, 2287, 2288	투왈 드 파쑹 앙디엔느(toile en façon indienne)	마·면 교직	3/4	루앙
2303-2310	뷔텐 에 바쟁(futaine et basin)	마·면 교직		루앙
2323-2328	투왈 드 로모아(toile de Romois)	마·면 교직		루앙
2692-2702	앙디엔느 핀 앙프리메(indiennes fines imprimés)	면	3/4, 1/2	젠느

한 기법의 프린트 직물이 215점으로, 수집된 견본의 주를 이루고 있어 면 프린트 직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견본 종류의 수량이 생산 및 소비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이 중 조성에 따른 직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꾸띠, 퀴텐느, 다마는 교직하지 않고 면으로만 제작되었고, 까디는 모, 바쟁은 마, 뽀뽀린과 빠스명띠에는 견, 뽀왈은 모 혹은 마와 교직하거나 교직하지 않고 면으로만 제작하였다<표 3>. 조직에 따른 직물의 종류로는 뽀왈, 꾸띠, 뽀뽀린은 평직, 퀴텐느, 바쟁, 까디, 뽀왈은 능직, 다마는 변형능직으로 이루어졌으며, 빠스명띠에는 장식끈을 만들기 위해 직기 자체가 다른 특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4>. 직물의 폭은 2/3, 1/2, 3/4, 1/4 aune (1aune = 1.188m)으로 18cm에서 27cm로 모나 견보다 비교적 좁은 폭으로 생산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표 3> 「리솔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의 조성에 따른 직물종류

구성	직물종류
면	뽀왈, 꾸띠, 퀴텐느, 다마
모혼방	까디, 뽀왈
마혼방	바쟁, 뽀왈
견혼방	뽀뽀린, 빠스명띠에

<표 4> 「리솔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의 조직에 따른 직물종류

구성	직물종류
평직	뽀왈, 꾸띠, 뽀뽀린
능직	퀴텐느, 바쟁, 까디, 뽀왈
변형능직	다마
장식끈, 술장식	빠스명띠에

컬렉션에 수록된 직물의 문양으로는 시아모아즈와 같이 프린트나 직조에 의한 줄무늬, 체크무

늬, 기하학무늬<그림 10> 엔디엔느와 같이 인도 면 프린트직물을 모방한 꽃무늬<그림 11> 그리고 직접 무늬를 넣어 짠 기하학 문양의 다마가 있다. 색상은 염료의 색상인 자주색, 빨강색, 청색, 노랑색,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여 하늘색, 분홍색, 초록색, 갈색, 주황색, 회색, 베이지색, 올리브색 등 염색의 정도에 따라 다감도의 색상을 보였다.

#### IV. 결론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리솔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264점의 직물 견본을 통해 18세기 초중반 프랑스 면직물의 유형 및 명칭에 따른 역사, 조성 및 조직 특성, 생산지, 용도 등을 조사하고, 18세기 직물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와 종합하여 그 제반 특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뽀왈, 쉬노아즈, 시아모아즈, 엔디엔느 등 다양한 기법의 프린트 직물이 215점으로 수집된 견본의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성에 따른 직물의 종류는 뽀왈, 꾸띠, 퀴텐느, 다마는 교직하지 않고 면으로만 제작되었고, 까디는 모, 바쟁은 마, 뽀뽀린과 빠스명띠에는 견과 각각 교직하였다. 조직에 따른 직물의 종류로는 뽀왈, 부판느, 꾸띠, 뽀뽀린은 평직, 퀴텐느, 바쟁, 까디는 능직, 다마는 변형능직으로 이루어졌으며, 빠스명띠에는 특수 조직으로 이루어진 장식끈 이다. 직물의 폭은 18cm에서 27cm로 모나 견보다 비교적 좁은 폭으로 생산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컬렉션에 수록된 직물의 문양으로는 인도 면 프린트직물을 모방한 꽃무늬와 줄무늬, 체크무늬, 기하학무늬 등과 직접 무늬를 넣어 짠 기하학 문양의 다마가 있으며, 자주색, 빨강색, 청색, 노랑색, 검정색의 염료의 색상을 기본으로 하늘색, 분홍색, 초록색, 갈색, 주황색, 회색, 베이지색, 올리브색 등 염색의 정도에 따라 다감도의 색상을 보였다. 뽀왈, 쉬노아즈, 시아모아즈,



앵디엔느 등의 프린트 직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물들은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섬세하게 짠 퀴텐느는 안감, 모와 교직한 기모직의 까디는 겨울옷감, 견과 교직하여 섬세하게 제직한 뽀뽀린은 라제리류로 사용되었다. 마와 섞어 굵게 짠 꾸띠는 콜셋에 사용되었고, 부판느, 바쟁, 꾸띠, 다마는 침장구용으로 쓰였다. 수록된 직물의 주 생산지는 프랑스 북부의 루앙, 메슬레, 아베빌, 젠느와 중부의 오를레앙 그리고 남부의 마르세이유, 앙띠브, 프로방스, 뻬르뻬낭, 뿔롱 등이다.

이처럼 「리슬리유 컬렉션」에 수록된 면직물 견본을 유형에 따라 조사함으로써 18세기 초중반 프랑스 면직물의 명칭에 따른 특징과 각 유형의 조성 및 조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 직물의 주 생산지와 직물사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제언으로써, 18세기 직물에 대한 명칭이 일관된 분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직물 용어의 지역 간 언어 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전통직물과 비교 연구 시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이선화, 권영숙 (2002). Broque 직물에 나타난 floral 패턴의 조형성, 복식, 52(7), p.2.
- 김희선, 구희경 (2006). 18세기 프랑스의 프린트 직물에 관한 연구: 트왈 드 죠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8(3), p.131.
- 신주영, 김민자 (2006). 18세기 로코코 패션에 나타난 시누아즈리(chinoiserie), 복식, 56(1), p.14.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36). La Collection Richelieu, Paris: BNF, Lh45(T.1).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32-1737). La Collection Richelieu, 7 volumes in-folio de 4818 Échantillons de Tissus et Rubans Fabriqués en France, Hollande et Italie, Paris: BNF, Lh45 à Lh45 f.
- Delpierre, M. (1996). Se Vêtir au XVIIIe Siècle, Paris: Adam Biro, p.67.
- Gontier, J. (1985). La Soierie de Lyon, Le Puy: Christine Bonneton Éditeur, pp.18-26.
- Delpierre, M. 앞의 책, pp.65-66.
- Jacqué, J. (1978). Toiles de Nantes des XVIIIe et XIXe Siècles, Pari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p.8.
- Viseux, M. (1991). Le coton, L'impression, Paris: Edition de l'Albron, pp.92-103.
- Jacqué, J. 앞의 책, pp.6-7.
- Chassagne, S. (1980). Oberkampf. Un Entrepreneur Capitaliste au Siècle des Lumières, Paris: Aubier, p.18.
- Roche, D. (1989). La Culture des Apparences, Paris: Fayard, p.137.
- 김희선, 구희경. 앞의 논문, pp.129-143.
- Jacqué, J. 앞의 책, p.9.
- Viseux, M. 앞의 책, pp.104-133.
- Brédif, J. (1989). Toiles de Jouy, Paris: Adam Biro, p.61.
- Viseux, M. 앞의 책, pp.15-29.
- Grand Palais (1987). Costume, Coutume, Paris: Ed. de la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pp.140-141.
-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1994). Les Etoffes Dictionnaire Historique, Paris: Les Éditions de l'Amateur, pp.141-142.
- Joubert de l'Hiberderie. (1733). Le Dessinateur pour les Fabriques d'Étoffes d'Or, d'Argent et de Soie, Paris: BNF.
- 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1984). L'Imprimé dans la Mode du XVIIIe dans Nos Jours, Paris: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Costume, pp.11-14.
- Bonnart, N. (1698). Homme en Robe de Chambre, Paris: BNF, Oa62C2504.
- 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앞의 책, p.15.
- 위의 책, p.18.
- Jacqué, J. 앞의 책, p.7.
- 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앞의 책, p.31.
- Biehn, M. (1987). En Juppon Piqué et Robe d'Indienne, Paris: Edition Jeanne Laffitte, p.54.
- Brédif, J. 앞의 책, p.94.
- Jacqué, J. 앞의 책, p.7.
- Vernet, J. (1754). Vue de l'Intérieur du Port de Marseille, Prise du Pavillon du l'Horloge du Parc, Paris: Musée de la Marine.
- Raspal, A. (1775). Atelier des Couturières, Arles: Musée Réattu.
- 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앞의 책, p.8.
- Musée de la Toile de Jouy. (1785). Coton Imprimé, La Fête Flamande pour un Lit à la Duchesse, Archives Galerie Ruf, Rastatt.
- Robert, P. (1988). Le Petit Robert, Paris: Dictionnaire le Robert, pp.1-2171.
- Leloir, M. (1951). Dictionnaire du Costume, Paris: Librairie Grund, pp.1-390.
-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1994). 앞의 책, pp.1-416.
- Centre International d'Étude des Textiles Anciens.

- (1959). Vocabulaire Français, Lyon: CIETA, pp.1-52.
- 38) Pellegrin, N. (1989). Les Vêtements de la Liberté, Paris: ALINEA, pp.1-207.
- 39) Grand Palais. (1987). Costume, Coutume, Paris: Ed. de la Réunion des Musée Nationaux, pp.1-328.
- 40) Robert, P. 앞의 책, p.1972.
- 41)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p.381-382.
- 42) Robert, P. 앞의 책, p.1972.
- 43)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258.
- 44) 위의 책, p.285.
- 45) Leloir, M. 앞의 책, p.363.
- 46) Robert, P. 앞의 책, p.306.
- 47) 신영주, 김민자 (2006). 앞의 논문, pp.19-21.
- 48) Savary de Bruslons, J. (1759-1765). Dictionnaire Universel de Commerce, d'Histoire Naturelle et des Arts et Métiers, Copenhague: Les frères C. et A. Phillibert, vol.5.
- 49)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195.
- 50)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앞의 책, p.2123.
- 51) Weigert, R. A. (1964). Textiles en Europe sous Louis XIV, Les plus Beaux Spécimens de la Collection Richelieu, Fribourg: Office du Livre. p.168.
- 52)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140.
- 53) 위의 책, pp.221-222.
- 54) Roux, A. (1994). Le Textile en Provence, Aix-en-Provence: Edisud, pp.161-162.
- 55)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103.
- 56) Robert, P. 앞의 책, p.840.
- 57) Leloir, M. 앞의 책, p.164.
- 58)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p.199-200.
- 59) 위의 책, p.80.
- 60) Pellegrin, N. 앞의 책, p.26.
- 61) Robert, P. 앞의 책, p.413.
- 62) Leloir, M. 앞의 책, p.113.
- 63)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73.
- 64) 위의 책, p.151.
- 65) Robert, P. 앞의 책, p.444.
- 66)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159.
- 67) Leloir, M. 앞의 책, p.53.
- 68)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p.115-116.
- 69) 위의 책, p.112.
- 70) Robert, P. 앞의 책, p.1483.
- 71) Leloir, M. 앞의 책, p.289.
- 72) Robert, P. 앞의 책, p.1483.
- 73)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앞의 책, pp.313-314.
- 74) Diderot, D. (1751). Encyclopédie Diderot et d'Alembert, Arts des textiles, Paris: Brisson, p.XI.

# **The Study on French Cotton in the 18th Century**

## **- Focusing on 「La Collection Richelieu」 -**

**Kim, Yang H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rench cotton in the early and mid-18th century through a variety of cottons from 「La Collection Richelieu」.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French textil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extile technology throughout the 18th century were carefully reviewed. Second, 264 cottons were selected from 4818 textile samples in 「La Collection Richelieu」 and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 name, composition, characteristic, use, and production site. The final samples of 215 consist of a variety of kinds including: toile, chinoise, siamoise, and indienne. In terms of composition, toile, coutil, futaine, and damas were woven with cotton only whereas cadis was a mixture of cotton and wool bazin was made with cotton and linen and popeline and passementier were made with cotton and silk. Toile, boutanes, coutil and popeline were plain weave. Futaine, bazin and cadis were twill, and damas was modified twill. Passementier is a braided tassel used for decoration. Fabrics such as toile, chinoise, siamoise and indienne were used to make clothes. The main production sites for these textiles were Rouen, Meslay, Abbeville, and Gene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France, Orléans, the middle part of France and Marseille, Antibes, Provence, Perpignan, and Toulon, the southern part of France.

Key words: 18th century, cotton, Richelieu collection